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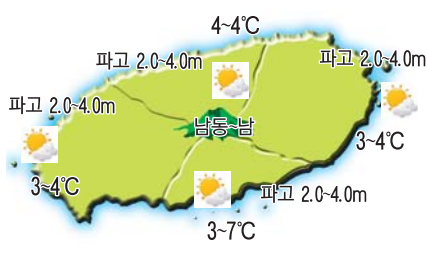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31일 화요일 음 12월 6일 (13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오후들며 날이 개고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3~4℃, 낮 최고 기온은 4~7℃로 출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2.0~4.0m로 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Island: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성산, 고산, 서귀포.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해돋이, 해질, 달뜨기, 달지기.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내일, 모레, 구름 많음, 3/8°C, 6/1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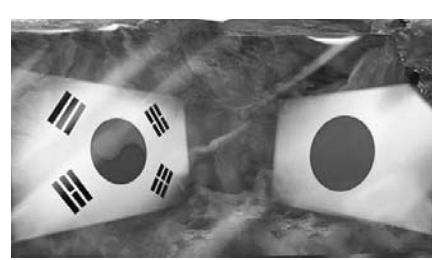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월드뉴스

日국민 느끼는 '한국 친밀도' 역대 최저

10년 후 관계도 '부정적 시각'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신문이 30일 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 4개국에 대한 친밀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한국은 1.9점(평균치)을 얻어 2014년 이 질문 항목이 포함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친밀감을 느낀다'를 5점, '느끼지 않는다'를 1점으로 환산해 평가한 한국 점수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할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작년 조사 때(2.1점)와 비



교해도 0.2점 떨어졌다. 징용 배상 등 역사 인식을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이 올해 들어 여러 영역으로 확산한 것이 올해 친밀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이 느끼는 친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3.4점)이었고, 중국(2.1점)이 그 뒤를 이었다. 10년 후의 관계에 대해 '좋아질 것'을 5점, '나빠질 것'을 1점으로 평가해 계산한 결과에서도 4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2.2점을 얻어 미래 한일 관계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발행인·인쇄·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김기현, 인터넷 서비스, 광고접수, 기사제보, 1989년 4월 22일 창간.

한라칼럼



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

송년의 시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송구영신을 비는 마음들이 모이고,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희망이 교차한다.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지친 시간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성취의 시간이기도 했을 기해년. 매년 한해의 마무리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으로 돌아보겠지만, 올 한해는 유독 대한민국과 제주도에 편치 않은 격동의 시간이었다. 시간이 상대성을 띠고 흐르는 것인지 우리가 시간을 분절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애매하지만, 무심한 듯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상대적인 시간을 보

내고 있다. 상대적인 시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개념이다. 한해를 보내는 기억의 편린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시간이 주는 무게이다. 시간은 강요하지 않고 경험이라는 선택의 문제를 던져주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온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는다. 새해는 지나가는 올해의 제대로 된 마무리 뒤에서 시작됐으면 좋겠다. 분열과 갈등이 마무리되고, 사건·사고가 제대로 수습되고, 아픈 사람의 마음이 다독여지는 그런 세밑이었으면 좋겠다. 아쉬움과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깨달음으로,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고마운 사람에게 보내는 감사와 사랑을 맞고 흐르는 것인지 우리가 시간을 분절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애매하지만, 무심한 듯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상대적인 시간을 보

내고 있다. 상대적인 시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개념이다. 한해를 보내는 기억의 편린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시간이 주는 무게이다. 시간은 강요하지 않고 경험이라는 선택의 문제를 던져주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온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는다. 새해는 지나가는 올해의 제대로 된 마무리 뒤에서 시작됐으면 좋겠다. 분열과 갈등이 마무리되고, 사건·사고가 제대로 수습되고, 아픈 사람의 마음이 다독여지는 그런 세밑이었으면 좋겠다. 아쉬움과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깨달음으로,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고마운 사람에게 보내는 감사와 사랑을 맞고 흐르는 것인지 우리가 시간을 분절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애매하지만, 무심한 듯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상대적인 시간을 보

좋았던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한해였으면 한다. 시간이 주는 경험에서 한 단계 더 전진하여 정치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장이 되고, 필요할 때만 들먹이는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기본권을 향유하고, 거리의 외침 이전에 배려와 소통이 선행하는 사회였으면 한다. 무엇보다 삶이 행복한 새해였으면 좋겠다. 정치의 목적이 행복한 삶의 추구이듯, 삶의 목적 또한 행복이어야 한다. 새해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웃음 짓고, 서로를 향한 온정으로 따스함을 나누며, 서로의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배려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이제 송년의 시간이다. 송년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굳건히 견뎌낸 당신에게 건네는 위로의 시간이다. 한해를 보내며, 또 한해를 맞으며 모두의 시간이 행복일 수 있기를.

열린마당

경자년! 고근산 해맞이 행사에 놀러오십써



강현수 서귀포시 대륜동장

경자년 새해! 고근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대륜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대륜동민 화합! 고근산 새해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귀포시민과 관광객의 새해 소망을 함께 기원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대륜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수고로움에 있기에 가능하다. 살면서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추운 몸을 녹여주던 떡국 한 그릇의 온기를 잊지 않는다면 새해 아침의 첫 마음을 떠올리면서 힘을 내라라 믿는다. 이런 마음을 담은 떡국을 보다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게 우리 위원들의 마음이다. 이번엔 준비하는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행사로 방침을 정했다. 700여명을 대상으로 떡국과 김치, 물, 음료수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행사로서 이에 따르는 사전준비와 사후정리가 엄청 나겠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륜동이 적극 동참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앞장설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고근산 해맞이 행사에 놀러오십써~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작은 실천



양원석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요즘 전국 각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을 위해 분주해진다. 날씨가 추워지면 가정에서는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가 늘어나 주택 화재 발생의 요인이 된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화재 중 27%,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3%가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발생해 주택 안전대책의 시급함이 드러났다. 주택화재는 대부분이 심야 취약시간대 발생해 화재 발생을 초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대피지연에 따른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규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토록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

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해 자체 내장된 음향 장치로 경보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심야시간 화재나 주택 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동작해 피해를 줄인 사례가 많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이후 미국은 사망률 55%(5865명→2670명) 감소, 영국은 사망률 34%(732명→483명) 감소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처럼 화재예방의 파수꾼인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골든타입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용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소방서에서는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가족들과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해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Large advertisement for 'Hakyeomso Maru' featuring Naver logo, '2020년 해돋이는 고이오름에서', and contact information: T. 064.805.5099, T. 064.764.6678.